



Russia·CIS Talk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원우 논문

Article

흑해 곡물 협정: 누구를 위한 체결인가?

류지환

석사과정, 러시아·CIS 경제 전공

jihwan1127@naver.com

패닉에 빠진 국제 곡물 시장

2022년 2월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세계 곡물 시장 가격을 천정부지로 폭등시켰다. 세계의 곡창지대로서 오랜 기간 글로벌 식량 공급 기지 역할을 해왔던 두 나라 사이에 전쟁이 터졌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농경지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대거 파괴되었다. 농업 종사자 수도 줄어들었다. 이는 자연스럽게 곡물 생산량 감소로 이어졌다. 2022~23년 우크라이나의 밀 생산량은 전년 대비 38.7% 수준으로 떨어졌다.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량도 1,235만 톤에서 476만 톤으로 전년 대비 약 61% 정도 대폭 감소했다. 곡물 수출량 급감은 일정 수준 생산량 감소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흑해 주요 항구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 해상 봉쇄에서 기인한 바 크다. 말하자면 전쟁으로 곡물 수출길이 막힌 것이다.

공급망이 불안정해진 곡물 소비국들은 수입선을 변경해야 했다. 국제 유가의 고공행진으로 물류비가 늘어나 수입 비용도 대폭 증가했다. 얹힌 데 얹힌 격으로 서구의 강력한 제재로 러시아산 곡물과 비료 수출까지 제한되면서 국제

사회의 식량난이 더욱 극심해졌다. 여기에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마저 자국산 곡물 수출을 중단하면서 국제 곡물 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인도 정부는 폭염으로 인한 생산량 감소, 흑해 지역의 대체 수요 급증, 밀 가격 상승에 따른 정부 조달 물량 확보 부족 등을 명분으로 밀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곡물 공급이 불안정하고 농산물 가격이 치솟자, 흑해 곡물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 특히 중동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가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았다. 북아프리카 주요국들의 밀 수입 의존도는 50%에 근접하는데, 이집트는 옥수수 대외 의존도도 상당히 높다.

흑해 곡물 협정 체결 배경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국제 곡물가 급등과 중동·아프리카 지역 등의 극심한 식량난이 국제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UN과 튀르키예가 나서 '해상 안전 항로'를 통한 곡물 수출 재개 방안을 추진했다. 관련국을 설득하고 협상한 결과 2022년 7월 22일 우크라이나-튀르키예-UN-러시아 4자간 '흑해곡물수출협정(Black Sea Grain Initiative)'이 맺어진다.

격렬한 전쟁 와중에도 곡물협정 체결이 성사된 배경은 무엇일까? 우선 글로벌 곡물 위기 해소를 위해 러·우 양국에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지구촌 여론의 강한 압박이 주요한 듯 보인다. 국제사회가 곡물 시장 가격의 조속한 안정과 개발도상국의 식량난 해소를 위해 협상을 통한 수출길 복원, 즉 곡물 공급망 복원을 강력히 요구한 것이다. 물론 튀르키예와 UN의 적극적인 중재 노력도 간과할 수 없다.

그러나 협정 체결이 성사된 진짜 이유는 따로 있다. 곡물 수출 제한으로 심대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전쟁 당사국들의 이해관계 일치, 즉 자생자박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는 러·우 양측 간 정치적 교감신경의 작동이 핵심 배경으로 작용한 듯 보인다. 키이우와 모스크바 모두에게 곡물 수출 재개를 통해 고갈된 재정 공간을 채워야 할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해상 수출 보장을 대가로 자국산 농산물 및 비료의 안정적 수출과 서구의 금융제재 해제를 노렸다. 뒤집어 말하면 러시아의 요구와 이익이 보장되지 않으면 곡물협정은 언제든지 휴지 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림 1. 흑해 곡물 협정 체결 회담
(출처: United Nations)

협정 내용과 이행 현황

흑해 항로의 안전 보장 합의를 통한 곡물과 비료 수출을 허용한 곡물협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우크라이나 주요 항구(초르노모르스크, 오데사, 피브데니)를 개방하고 합동조정센터를 만들어 군함과 항공기, 무인기가 해상 인도주의 회랑에 접근할 수 있는 거리를 결정한다. 이 협정에 참여하는 모든 선박은 검색 대상이 되며 튀르키예 해협 인근에서 검사받는다.

문서는 서명 일(7월 22일)로부터 120일 동안 유효하고, 기본적으로 어느 일방이 해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경우 협정 연장은 자동으로 이루어진다. 마침내 협정이 체결되면서 국제 화물선들이 우크라이나 흑해 항구를 안전하게 드나들 수 있게 되었고 일시적으로나마 곡물 공급망이 복구되었다.

협정은 체결 이후 2023년 현재까지 총 다섯 차례 발효됐다. 처음 발효된 협정은 120일간(2022.07.22~2022.11.19) 유효했지만, 2022년 10월 29일 러시아 측이 갑자기 협정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키이우 정권이 흑해에 있는 러시아 함대와 곡물 통로 보안에 관계된 민간 선박에 테러 공격을 감행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22년 11월 20일부터 2023년 3월 19일까지 한 차례 협정 연장이 이뤄졌다. 하지만 또 한 차례 더 연장된 협정은 러시아가 탄지를 걸어 유효기간이 120일에서 60일로 줄어들었고 이후 이와 똑같은 조건으로 두 차례(2023.03.20~2023.05.16./2023.05.17~2023.07.18) 더 연장되었다. 연장 기간 축소 이유는 크렘린이 요구한 러시아 농업은행의 국제은행결제망 재연결, 러시아 농업 및 비료 관련 기업들의 해외 자산 동결 해제와 암모니아 수송관의 우크라이나 구간 재가동 등의 조건이 이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슬아슬한 재협상 줄타기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국가는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의 개발도상국들이다.



그림 2. 아프가니스탄으로 떠나는 곡물선
(출처: United Nations)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는 저개발 곡물 수입국

앞서 언급한 것처럼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의 흑해 곡물 의존도는 매우 높다. UN과 튀르키예는 개발도상국들의 식량 안보를 위해 협정

체결을 추진했다고 강조하지만 정작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으로 유입되는 흑해 곡물은 13.5%에 불과하다. UN 자료에 따르면 흑해 곡물의 85% 이상이 서유럽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으로 수출되며 세계은행(World Bank)은 흑해 곡물이 중·저소득 국가들보다 고소득 국가들에 약 80%가량 수출된다고 지적한다. 러시아는 실제로 고통 받는 개발도상국들로 수출되는 곡물량을 늘려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했지만, UN은 흑해 곡물 수출 재개로 세계 곡물가가 하락해서 개발도상국들의 식량 안보 위험이 해소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국제 곡물가가 밀 선물가격을 중심으로 하락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달러 강세 여파로 환율이 급등했기 때문에 곡물가가 안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흑해에서 곡물을 수출하는 선박의 검사도 하루 평균 6척에 그치면서 개발도상국들, 특히 아프리카와 중동 국가들은 여전히 식량 위기 속에 놓여 있다. 흑해곡물협정의 연장과 재연장을 보면서 언뜻 ‘경전하사’(鯨戰鰕死), 즉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라는 속담이 떠오른다. 협정이 중단될 위기에 처할 때마다 협정 당사국들의 이득을 위한 싸움으로 전쟁과는 무관한 저소득 국가들은 심각한 생존 위협을 받고 있다. 지구촌 시민들의 여망처럼 전쟁이 조속히 종식되어 곡물 공급망이 완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한다.

후원 ■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기획 ■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INSTITUTE OF RUSSIAN STUDIES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주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러시아·CIS학과

발행인 ■ 홍완석 편집인 ■ 김상경 주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07

홈페이지 ■ ruscis.hufs.ac.kr 이메일 ■ dracs@hufs.ac.kr TEL ■ 02-2173-2556